

2023. 9. 20.(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9월 1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2133-5260
도시외교팀장	박경민	2133-5262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오세훈 서울시장, 정전 70주년 맞아 미(美) 뉴욕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

- 오 시장, 참전용사와 함께 기념비 방문 헌화,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 전달
- 참전용사 기념비 참배로 보훈 시정의 본격화 및 지자체 차원의 한미동맹 강화 동참
-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면담, 뉴욕시와 경제·사회·기후·문화 등 분야 친선협력 체결

- 오세훈 시장은 18일(월) 오전 11시<현지시간> 뉴욕 첫 공식 일정으로 맨해튼 배터리파크 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 묵념하며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 지난 1991년 미국 내 최초로 헌정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는 미국 내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이라 불리는 한국전쟁을 알리고, 한국전 참전한 미군 및 UN군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다. 기념비에는 22개 참전 국가들의 국기와 국가별 한국전쟁 사상자 수가 모자이크식으로 조각돼 있다.
- 정전 7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가 깊었던 이번 방문에서 오 시장은 “70년전 이름도 몰랐던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의 평화수호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4만여명의 영령들을 추모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번영의 씨앗을 만들어주신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를 표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원조받던 나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유일한 나라로 성장했으며, 서울시는 국제사회 기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물질, 경제적 역할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방문에는 박근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지회 회장, Sal Scarlato(살 스칼라토) 한국전쟁 美 참전용사 총회 뉴욕지회 회장 그리고 김광석 뉴욕한인회 회장 등이 함께 자리해 그 의미를 더했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참전용사에 감사의 뜻을 담은 대시민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의 개편·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이다.
- 또한, 현재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범위도 내년 1월부터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뉴욕시장 면담 및 친선도시 MOU 체결>

□ 참전용사 기념비 헌화 이후 14시<현지시간> 뉴욕시청을 방문한 오 시장은 에릭 애덤스(Eric Adams) 뉴욕시장과의 면담에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핵심 정책을 소개하고 ‘약자 동행’ 관련 양 도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이어, 서울시와 뉴욕시의 협력 보폭이 넓어짐에 따라 지방정부 간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양 도시 간 경제, 사회, 기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 및 상호협력을 위해 친선도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올해 8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개최한 광복절 기념 태극기 게양행사에 뉴욕시장으로는 최초로 참석해 ‘뉴욕은 미국의 서울’이라고 언급한 에릭 애

덤스 뉴욕시장은 일자리, 안전, 주택, 돌봄을 행정 키워드로 두고, 특히 유색인종·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등 주요 정책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이후로 한미 관계가 안보, 문화, 경제적인 관계를 넘어 과학기술 동맹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매우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서울시와 뉴욕시가 친선 우호 관계를 맺어 매우 뜻깊고, 양 도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시는 유엔본부를 비롯한 수많은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문화예술기관이 위치해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뉴욕시와의 친선결연을 계기로 ‘서울’의 매력과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사진자료,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미국 뉴욕시 개항 각1부. 끝.

□ 기념비 개요

- 설립연도 : 1991년
- 설립주체 : 뉴욕시 한국전쟁참전용사 추모위원회 (시장 직속 독립위원회)
(New York Korean Veterans Memorial Commission)
※ 위원회 주관 펀딩을 통하여 설립자금 조성
- 설립목적 : 미국 내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이라 불리는 한국전을 알리고,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 특 징
 - (기단) 미국, 영국, 태국 등 유엔군으로 참전한 21개국의 국기가 모자이크식으로 부착
 - (바닥) 한국전에 참전한 국가별 사망·부상·실종자 수 기록

✓ 기념비 상 기록 주요 참전국별 사망, 부상, 실종자 현황 ('19년 기준)

- 한국 : 전사자 58,127명 / 부상자 175,743명 / 실종자 174,244명
- 미국 : 전사자 54,246명 / 부상자 103,248명 / 실종자 8,177명
- 영국 : 전사자 909명 / 부상자 3,497명 / 실종자 141명
- 터키 : 전사자 721명 / 부상자 1,475명 / 실종자 175명
- 호주 : 전사자 339명 / 부상자 1,216명 / 실종자 29명

그 외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벨기에, 태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스웨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전경



참전국가(기단)



국가별 사상자 새김(바닥)

□ 기본개황

○ 명 칭 : 뉴욕시 (City of New York)

※ 별명 : 애플, 고담시티, 잠들지 않는 도시

○ 위 치 : 미국 동북부 뉴욕주
동남단 허드슨강 하구

○ 인 구 : 약 880만 ('21년)

※ 미국 최대 인구밀도, 다민족 도시

○ 면 적 : 790.78km² (서울의 약 1.3배)

○ 기 후 : 온난 습윤 기후로 여름은 고온다습, 겨울은 한랭건조

○ 정 치 : 다른 미국 도시보다 시장, 의회의 권한이 크고 집중

- 시 장 : 에릭 애덤스(Eric Edams, '22년~'25년, 뉴욕 110대 시장)

- 시의회 : 총 51명(단원제 의회, 선출직, 4년 임기, 3회 연임가능, 4년후 재출마 가능)

○ 행정구역 : 5개의 자치독립구(맨해튼, 브루클린, 퀸스, 브롱크스, 스테튼아일랜드)



□ 도시특성 : 미국 최대도시이자 세계 경제·문화·예술 중심지

○ 세계의 수도로 불리며 유엔본부가 위치한 세계의 정치·외교 중심지이자 월스트리트를 통해 세계 금융과 경제의 중심도시 역할

○ 국제 금융, 경제, 정치, 문화, 교통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영향력에 따라 평가되는 세계 3대 도시(뉴욕, 런던, 도쿄)

○ '22년 기준 5,640만 명의 관광객(뉴욕관광청)이 방문한 세계적인 관광지

□ 뉴욕시 친선도시 현황 (11개)

○ 도쿄('60), 베이징('80), 마드리드('82), 카이로('82), 산토도밍고('83), 로마('92), 부다페스트('92), 예루살렘('93), 런던('01), 요하네스버그('03), 아테네('22)